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속도 눈부시게 빠르다

한전, 전방위 노력 ... 나주이전 4개월만에 11개 입주기업 유치

한국전력의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속도가 눈부시다. 나주에 동지를 든 지 불과 4개월 만에 에너지 밸리 입주기업 11개사를 유치했고, 에너지 밸리 센터 건립도 발판을 마련했다.

밸리 조성의 기초사업인 나주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이미 착공했다. 지역 협력 기반을 쌓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한 지역 기업 수출 지원협약까지 맺었다.

한전이 조성 사업에 전방위로 다가서면서 ‘에너지 밸리’의 구축이 멀지 않았다는 게 광주시·전남도의 입장이다.

◇2020년까지 기업 500개 유치 목표 =한전은 지난 30일 전력·에너지 신산업·전력ICT 분야 10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네오피스 등 10

개 기업은 빛가람 혁신도시와 나주 혁신산업단지 등에 본사나 지사를 설립하고, 총 32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만 322명에 달할 전망이다. 주류제조업체 보해양조의 경우, 나주 혁신산단을 터전으로 바이오에탄올 에너지 사업에 새롭게 진출할 뜻도 내놓았다. 지난 27일 서울에서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공동 투자설명회를 연 지 불과 사흘 만에 10개 기업을 유치한 것이다. 앞서 입주 1호 기업이 된 보성파워텍까지 합치면 11개사가 벌써 입주사를 밝혔다.

에너지 밸리 조성의 산실이 될 에너지 밸리 센터 건립도 착착 진행중이다. 한전은 자회사(한전KPS·한전KDN)와 전남도, 기초전력연구원 등과 건립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센터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에너지밸리 연관 주요 기관 사업 설명회’에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에너지 밸리 센터 건립 순조

지역 기업 연계 사업도 착착

‘전력+ICT’ 스마트에너지 메카

는 이전기업 R&D지원 및 창업보육 등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지역 산학연 R&D 강화를 담당할 기초전력연구원 분원도 같은 날 개원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국가 신성장 동력기지 = 다른 기업과의 산업 융합을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에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앞날이 밝다. 지난 25일엔 KT와 ‘빛가람 에너지 ICT 융합센터’를 공동 설립하기로 했다. 이 시설에서는 앞으로 진보형 원격 검침(AM)과 스마트홈, 전기차 충전·카셰어링, 연구개발 및 벤처육성 등을 두 기업이 협력하게 된다. ‘전력+ICT’로

빛가람 도시를 스마트에너지 분야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12월 두 기업이 상호협력의 체결한 뒤 빠른 후속조치로 이어졌다.

지역 산학연과의 연계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3월11일 전남발전연구원과 미래 전력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유가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26일엔 광주테크노파크의 해외비즈니스센터(37개국 44개 센터)를 이용, 전력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지원도 약속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밸리 조성”은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인데, 한전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라며 “상생 분위기가 무르익는 이때 지역민의 성원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다시, 4월 ... ‘잔인한 세월’

세월호 참사 1주기 다가오는데 선제인양·진상조사 등 해결 안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4월이 왔지만 선제인양 방점 조차 결정이 안되고 진상조사도 미진하다. 구체적 보상 배·보상마저 불투명해 국민들이 또 한차례 우울한 4월

의 소식을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농해수위원회실을 찾은 이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공무원이 주가 돼 업무전반을 관리하게 해 저희가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범 사형령 및 선제 인양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세월호 1주기 전에 각종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배·보상 문제는 지난번에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빨리 급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 방점 조차 결정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대표나 저나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 및 선제 인양을 요구하며 내달 중순 세월호 1주기까지 농성에 들어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U대회 홍보단 출정식

광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시청사 1층 시민홀에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단 출정식을 갖고 비회기 동안 전국 15개 시도의회를 방문해 U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삼성, 광주U·세계수영대회 공식 후원

삼성 U대회 홍보단 출정식

광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시청사 1층 시민홀에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단 출정식을 갖고 비회기 동안 전국 15개 시도의회를 방문해 U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호남권 최초의 국제종합스포츠 대회인 유니버시아드와 2019년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원을 요청한 결과 최근 삼성으로부터 2개 대회 모두

후원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광주는 지난 31일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호남권 최초의 국제종합스포츠 대회인 유니버시아드와 2019년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원을 요청한 결과 최근 삼성으로부터 2개 대회 모두

후원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은 올림픽 등 글로벌 이벤트 후원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선도 기업으로 세계적인 입지를 다져왔지만, 광주지역에서 열리는 2개의 국제대회를 모두 후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광주의 후원 요청에 대해 삼성은 지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기여 활동의 일환으로 오랜 고심 끝에 대회 후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U대회 홍보단 출정식

2015광주유니버시아드에 최고 등급인 글로벌 프리미엄 파트너로 참여, 100억 원 규모의 대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자 제품을 후원할 것으로 분석된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국제수영연맹(FINA)의 1등급 후원사인 오피셜 파트너(Official Partner)로 참여, 광주에서 대회가 열리는 2019년까지 FINA의 후원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호남지역에서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열악한 재정, 인프라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준비해오고 있는 상황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통 큰 후원 결정을 해주어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검사를 끝으로 21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강진출생, 전남고, 연세대 법학과
- 제33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23기)
- 광주지검·서울지검·대구지검 검사
- 광주지검 목포지청·순천지청 부장검사
- 서울서부지검·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 광주고검 검사
-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

변호사 조인형 올림

◆입무개시 : 2015년 3월 17일(화)
◆개업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73동명빌딩 3층
◆대표전화 : 062)234-4700
팩스 : 062)234-4701
◆개업소연 : 2015. 4. 7(화) 17:00부터

호남선 KTX 이렇게 달린다 ▶ 3편

달리진 KIA 뒷심 강해졌다 ▶ 20편

어? 성정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4시 (10주 과정)
광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
구약 과정 개강
문의 062) 605-1112 광신대 평생교육원

용산 - 광주송정 90분대
인천공항 - 광주송정 120분대

1단계 182.3km
2단계 66.8km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순수 국내기술력으로 건설하였습니다.”

국민 행복의 동반자!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을
축하합니다.

[합동 제2고가]

SK, SAMSUNG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DAELIM, S형용건설, 인천공항공사, GS 건설